

태 국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가시화

미국 및 유럽의 경제침체에 더하여 최근 그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위기 가능성은 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태국 경제도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수출 부문이 주도하는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이후 성장 확대 예상

금년 상반기에는 민간소비지출과 재정지

출은 증가하나 수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도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민간투자도 외국인투자의 감소, 민간채무의 가중, 신용경색 등의 요인으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동안 비교적 착실히 진행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점차 민간투자 회복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이 가속화될 경우 내년에는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표>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1999	2000	2001	2002 ^{추)}	2003 ^{추)}
경제성장률	3.3	4.4	1.4	1.7	2.4
물가상승률	-5.4	1.6	1.6	1.2	2.4
재정수지/GDP	-3.3	-2.2	-2.7	-4.1	-3.6
상품수지	14,013	11,757	7,100	7,900	7,600
수출	56,775	67,949	61,800	64,300	70,900
수입	42,762	56,192	54,700	56,400	63,300
경상수지	12,428	9,369	5,100	5,400	4,600
총외채	96,300	80,600	70,900	66,000	63,100

주 : 추정치

자료 : EIU, Country Reports, 2002. 1.

이 전통적인 성장주도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산물 국제가격의 회복과 함께 총 노동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의 수출도 활기를 띠며 따라 민간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건설 부문도 지방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최근 수년간의 침체에서 탈피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채무 증가의 우려 남아

최근까지의 경기부양 대책이 고용 및 산업생산 증가 등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함에 따라, 탁신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지난해 1월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적극적인 정책실천 의지를 상실한 채 선거 공약 이행의 차원에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2회계연도(2001. 10~2002. 9) 예산을 들 수 있다. 태국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580억 바트 규모의 예비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50% 정도를 농업 분야에 지원하는 등 개략적인 내용 외에 경제회생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약 100만 명의 농민에 대한 부채상환 유예조치 실시에서 제외된 농민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농업취락 지구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도 지원금 유용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시행방안 부재로 인해 예산집행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경기부양 대책의 혼선과 더불어

심화되는 재정수지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태국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자산관리공사(asset management company)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비용이 당초 예산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세수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2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4.1%에 이르는 등 2006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반에는 공공채무 급증 및 금리인상으로 재정운용에의 압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공공채무 규모는 작년 9월말 현재 GDP의 58%선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에는 6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 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탁신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에는 다소 높은 부채비율을 용인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탁신 총리, 집권기반 강화에 나서

최근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탁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나, 탁신 총리는 오히려 경제전반을 직접 챙기면서 당내 세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수적(數的) 우위를 바탕으로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 연립정당인 NAP의 융차이유드 총재에게 TRT와의 합당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탁신 총리는 통치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조만간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끌어낸 탁신 총리는 더욱 강화된 정치적 입지를 바탕으로

인선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TRT당 사무총장인 푸라차이가 부총리로 기용되는 등 작년 1월의 총선 이후 여론의 압력으로 축출되었던 親탁신 인사들 상당수가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푸라차이는 불법 매춘과 마약 추방을 위한 '사회정화운동'을 추진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이 과정에서 군부 및 당내 일부세력의 반발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었다.

측근 세력의 재등용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탁신 총리는 최근 국왕과의 알력설, 언론탄압 조치에 따른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金 鍾 虎】